

'천년전주 마실길'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전주시, 한옥마을 중심 307km 대상... 기존 길 정비·탐방하기 좋은 코스 개발 등 나서기로

전주시가 각종 탐방길 숲길 등 전주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얽혀져있는 각종 길들을 한데 엮어 전주의 역사와 문화 생태가 스며있는 천년전주 마실길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천년전주둘레길 다울마당과 행정 IT팀의 현장조사 및 점검, 노선 탐방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조사 시의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부터는 천년전주 마실길 종합계획을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주에는 현재 각 부서별 조성한 마실길과 탐방길 숲길 등 157km와 천년고도 옛길 코스 150km 등 총 307km의 길이 한옥마을 중심

으로 복잡한 모세혈관처럼 얽혀져 조성돼 있다.

시는 도시 곳곳에 위치한 각종 마실길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한데 묶어 전주만의 특색있는 마실길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천년전주 다울마당 위원들과 행정 IT팀을 중심으로 남포사 주변 코스와 건지산·오송계 주변 코스 한옥마을 마실길 주변 코스 등에서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길의 역사·생태자원을 체험했다.

또 현장회의를 통해 각 코스별 노선과 편의시설 현황, 유래 등을 점검했다. 시는 또 마을조사를 통해 전주의

산과 봉우리의 명칭유래, 지명 유래와 마을 전설 마을별 스토리 역사·문화·생태 관련 기본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완산동 곤지산에서 완산꽃동산 일원 1.5km 구간에 4억 8000만원을 들여 초록바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데크를 설치하고 초록바위 정상에 전망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생태·문화·역사 등을 연계한 친환경 테마 숲길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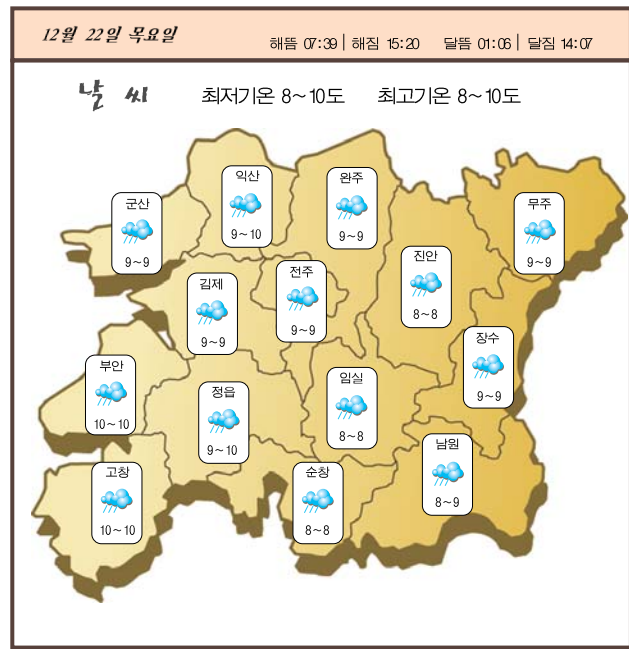
시는 앞으로도 다울마당 운영 및 IT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의 길은 정비하고 탐방하기 좋은 코스를 개발해 각 코스별 특성화 전략을

미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천년전주 마실길을 제주 올레길과 같은 전주를 대표하는 마실길로 만들고 탐방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전주시는 천년전주 마실길을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최고의 길로 만들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며 "천년전주 마실길에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모두 보고, 듣고, 느낄 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야기가 있는 테마별 탐방코스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국제교류 원하는 해외도시들 전주에 '러브콜' 쇄도

사픽 라사디 주한모로코 대사부임후 첫 공식방문지로 전주 선택

전주시와 교류하려는 주한외국대사관과 해외도시들의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제교류를 원하는 해외도시들의 러브콜이 쇄도하면서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국제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입증됐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픽 라사디(H.E. 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 대사부부가 이날 인사차 전주를 방문했다.

특히 사픽 라사디 대사는 지난 11월 부임 후 첫 공식방문지로 전주를 선택해 눈길을 끈다.

사픽 라사디(H.E. Chafik RACHADI) 대사부부는 이날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와 모로코 마라케시간 우호도시 추진과 교류분야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모로코의 3대 도시로 손꼽히는 마라케시와 짧지만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양 도시간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모로코 문화부 장관과 마라케시 부시장간 일행이 전주를 방문해 전주의 교류추진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주한 모로코 한국대사관 공관 리모델링사업이



부임 후 첫 공식방문지로 21일 전주를 찾은 사픽 라사디(H.E. 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 대사부부가 김승수 전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다.

추진됐으며, 마라케시의 전주와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난 10월에는 대한민국 명예영사관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주는 올 한해 모로코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앙골라, 르완다 등 아프리카 지역, 외국 주요도시 등에서도 교류요청을 받아왔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에 이렇듯 국제교류 러브콜이 쇄도하는 이유는 전주가 가진 역사와 문화의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

/김영재기자

전북기계공고, 국제 로봇대회 '동상'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국제 로봇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기계공고 로봇동아리인 'CMITSM'팀이 최근 중국 베이징(북경)에서 열린 '국제로봇올림피아드(RO)'에서 동상을 받았다.

이 팀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재난 대책본부에 알릴 수 있는 로봇인 M-Train을 선보였다.

로봇동아리 지도를 받고 있는 진양우 교사는 "이번 성과는 직 무발명과 특히, 학생들의 아이디어 개선 등이다"라며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학교측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는 기존의 수학,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 등과 함께 창의적인 과학기술 마인드를 심어주는 국제 규모의 로봇 대회이다.

/정해은기자

원광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교과목 수강생 국가공인 'CS 매니저' 자격 시험 전원 합격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운영한 교과목 수강 학생 27명이 한국교육지원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CS(Customer Service) 매니저' 자격 시험에 도전해 응시생 전원 합격했다.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여대생 경력개발(CS 양성반)' 교과목 수강생들로 2016학년도 2학기 동안 총 32시간에 걸쳐 교육과정을 마쳤다.

원광대는 기업에서 고객 만족 서비스 부분이 경영, 재무, 마케팅, 인사 등과 같은 하나의 분야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는 서비스 마인드 정립과 내·외부 고객의 동기부여, 서비스

민족 교육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차별화된 취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식품영양학과 3학년 김지유 학생은 "비즈니스 매니저라는 것이 무조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문제해결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CS 매니저 자격증 취득으로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황은희 교수는 "학생들이 앞으로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통해 진로를 준비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제 양성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